

2016-1 가천대학교 <독일의이해> 5주: 철학 + 인간, 삶, 고통 +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1. 철학: 그리스어 ‘philos(사랑)’ + ‘sophia(지혜)’ = ‘philosophia(지혜를 사랑함)’ → 사람에게 관한 물음이며, 자신이 속한 세계와 자신과의 관계에 대한 탐구를 ‘철학’이라 할 수 있다.

1) 고대철학: 알고 싶다!

그리스 철학이 시작한 정확한 시기와 장소는 아무도 모른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리스 철학은 아테네에서 시작된 것도 아니요, 그리스 중심부에서 생겨난 것도 아니다. 서양철학은 그리스 세계의 변방, 그리스 본토로부터 멀리 떨어진 도시국가 문화에서 시작한다.

탈레스: 별자리를 관찰하다 우물에 빠진 올리브 농장주인 모두가 “누가 이 세상을 만들었을까?”를 고민할 때, “이 세상의 만물은 무엇으로 만들어졌을까?”를 에 대해 고민함. 결론은 세상이 물로 만들어져 있다”. 그의 생각의 옳고 그름을 떠나 거의 최초로 ‘생각해 보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철학의 아버지라는 별명을 가지기도 함.

소피스트(Sophist)들: 돈이 많아지고 정치가 중요해 지면서 자신을 우아하고 논리적으로 표현할 필요를 느낀 아테네 사람들, 말하는 기술과 교양을 돈을 내고 배우기 시작함. 그것을 가르치던 사람들이 바로 소피스트. 이들은 객관적으로 누구나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진리나 가치를 부정하며, 나아가 사회적 질서를 위해 만들어진 법조차 거부. 광장히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로 사람의 주관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로 객관적으로 옳거나 정당한 것이 없다고 생각함. 결국 ‘아무 것도 알 수 없다’ ‘말이 통하지 않는다’ ‘소통은 불가능하다’라는 생각에 부딪혀 절망.

소크라테스: 겸손, 청렴, 솔직, 유머러스 했다고 전해지는 수다쟁이 철학자. 무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대화라 생각. 대화를 통해 상대를 공격하기보다 대화 상대가 더 나은 지식과 지혜를 고집어 낼 수 있도록 도와줌(산파술: 아이를 대신 낳아 주지는 않지만, 아이 낳는 고통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며 도와주는 산파처럼) “너 자신을 알라!” → “나는 내가 원하는 것들의 집합인가?” “나의 지식이 전부인가?” “나의 생각은 정말 나만의 독특한 생각인가?” “나라고 하는 존재는 남들의 생각과 의견으로 꼭 채워진 ‘나의 남’은 아닌가?” → “나는 내가 모른다는 것을 안다.”: 이성인 우리의 생각을 이끌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성의 힘을 통해 무지로부터 벗어나는 것!

플라톤: 소크라테스의 제자로 아테네에 ‘아카데메이아 Academeia(스승과 제자가 정원을 산책하며 대화를 통해 수업)’라는 학교를 세움. 철학, 수학, 체육학 강의가 이루어짐. 이 세계의 모든 것은 변하지 않는 본래의 모습인 원형(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세계와 다른, 이 세계의 근원적인 모습인 이데아)을 닮으려는 모방. 그러므로 예민하게 ‘아름다움’과 ‘아름다운 것들’을 구분함. 이데아에는 도달할 수 없음. 다만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 뿐!

→제기되는 의문: “어떻게 이데아를 알 수 있는가?”: 인간에게는 전생이 있고, 망각의 강(레테 강)을 건너 이곳으로 옴. 전생에 알고 있던 것을 레테 강을 건너며 잊어버리게 된 것이므로 무엇을 인식하고 배운다는 것은 ‘재기억 Anamnesis’ 작업.

- 동굴 우화: 사슬에 묶여 있는 죄수는 동굴 안에서 보는 그림자의 세계를 참된 세계라 믿음. 이 사슬을 풀고 밖으로 나와 태양이 비추는 세계를 볼 때, 잊어버렸던 이데아의 세계를 기억해 낼 수 있음!

아리스토텔레스: 이성이 내리는 현명한 판단 없이 우리는 대상을 바로 볼 수 없다고 봄. 플라톤의 이데아론은 우리가 세상을 아는 데에 도움을 주지 못한다고 생각. 아름다운 것들 안에는 이미 아름다움이 내재되어 있음: “사물의 본질은 바로 그 사물 안에 들어있다.” (형이상학: 자연현상의 뒤에 무엇이 있는가?)

2) 중세철학: 나는 여전히 알고 싶다!

아우구스티누스(Sanctus Aurelius Augustinus, 354-430): “나는 나를 아는 당신을 알고 싶습니다. 당신이 아는 그대로의 나를 알고 싶습니다.” 논리적 시간론: 과거는 이미 지나갔기 때문에 없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없고, 현재는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없는 것.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현재는 없는 것이나 다름 없는 극히 짧은 ‘순간’일 뿐. 오직 시간적인 존재인 인간은 과거를 기억하고, 현재를 직관을 통해 파악하며, 미래를 기대하는 세 가지 능력을 통해 시간을 뛰어넘는 절대자를 알게 되며, 이 절대자의 창조물임을 인정하게 됨. 우리가 불완전한 존재임을 인정하는 것이 곧 죄의 고백이며 절대자에 대한 찬미이며, 진리에 이르는 길.

토마스 아퀴나스(Thomas Aquinas, 1224/5-1274): 욕망이 담긴 그릇이라 오해되고 있는 육체는 영혼(정신)을 가두는 무덤이 아니다. 영혼과 육체가 결합된 존재인 인간이 감각적인 경험에 대한 욕구를 갖는 것은 당연. 어차피 무한한 신을 유한한 인간이 사용하는 개념으로 인식할 수 없음. 기껏해야 우리가 신을 인식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게 될 뿐. 신이 되려 하지 말고, 인격에 대해 고민하자! 이성을 통해서 미신이 아닌 참된 신앙의 길을 찾아가야 하지 않겠는가?

3) 계몽철학: “계몽이란 인간 스스로의 잘못으로 빠진 미성숙 상태에서부터 벗어나는 것이다. 미성숙이란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혼자서는 생각하는 힘을 사용할 줄 모르는 것을 말한다.”(칸트) - 생각과 행위에 있어서 강제가 아닌 자유와 주인의식이 중요하며, 합리적인(이성적-독일,프랑스) 방법과 경험론적(영국) 방법을 통해 계몽될 수 있다.

합리론적 방법: 세계는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구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세계를 이해하려면 논리적인 구조를 먼저 알아야 한다.

경험론적 방법: 감각기관에 의한 경험을 통해 세계를 만나며, 그 후에 세계의 질서를 알게 된다.

4) 독일철학:

라이프니츠(Gottfried Wilhelm Leibniz, 1646–1716): “어떻게 앎, 즉 인식이 가능하며, 세계를 어떻게 이성으로 파악할 수 있는가?” – “그 어떤 것도 충분한 근거 없이는 존재하지 않는다.” 모든 것에는 이유가 있다!

칸트(Immanuel Kant, 1724–1804): 기존 형이상학이 불완전한 이유는 인간의 이성이 현상 뒤까지 살필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의 이성이 아무리 뛰어나다고 하더라도 경험 영역 밖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알 수 없다. -> 우리가 이성을 통해 ‘다’ 알지 못하는 것은 대상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그 대상을 인식하고 그 대상에 대해 고민하는 주체인 나 때문이다. 기존의 철학에서 완전하다고 여겨온 이성의 인식능력은 사실 제한적이며, 이성 혼자 힘으로는 대상을 다 파악하지 못함. 그래서! 이성 그 자체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 -> 순수이성비판, 실천이성비판, 판단력비판. 그 동안 철학의 대상이 아니었던 우리의 인식능력, 즉 이성 자체를 철학/고민의 대상으로 무대 위에 올려놓았다는 점에서 가히 혁명적!

신의 존재 증명 불가능성: 완전하고 영원한 존재로서의 신의 존재를 의심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이성은 신이 실제로 존재함을 증명할 수 없음. 그래서 신을 증명할 수 없다고 말함. 이 말은 당시에 ‘신은 없다’라는 말로 오해를 받기도 함.

헤겔(Georg Wilhelm Friedrich Hegel, 1770–1831): 자신의 철학을 체계화하기 위해서 사고의 형식을 먼저 비판적으로 검토할 필요를 느낌 - 사유 형식의 법칙성: 헤겔의 변증법 - 모든 주장(Thesis)은 그 논제 자체에 이미 논제에 모순되는 대립 주장(Anti-thesis)을 가지고 있으며, 이들은 서로 영향을 주고 받으며 하나의 통일된 종합(Synthesis)을 이루어냄. 이 때 종합 속에는 이 전의 두 가지 것의 특징이 보존되어 있으며, 동시에 전혀 다른 새로운 성질을 가짐. 이 통일체는 계속해서 변증법 운동을 하는데 이 운동과정이라 바로 정-반-합 운동. 이 운동은 정신작용의 결과이며 고도의 이성적/반성적인 운동. 우리의 이성은 전체를 파악하면서 부분적 이해와 부정적 비판을 종합해 더 깊은 반성을 하게 하는데, 변증법 운동에서 중요한 것은 정과 반을 매개하는 이성의 역할.

쇼펜하우어(Arthur Schopenhauer, 1788–1860): ‘삶이란 의심스러운 문제이다. 그래서 나는 그것에 대해서 사유하는 데 나의 삶을 보내기로 결심했다.’

세계는 고통으로 가득 차 있으며 인간은 불행한 존재. 세계는 이성이 통제할 수 없는 비이성적인 의지에 의해 움직임. 주의할 것은 그가 단순히 삶을 비관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진 의지 앞에 무기력한 존재로서의 인간의 한계에 주목하였다는 점.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 Die Welt als Wille und Vorstellung>: 세계는 알려는 의식을 가지는 사람에게만 이해되는 대상이며, 알고자 하는 ‘나’는 세계를 있는 그대로 이해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음. 외부세계를 인식하고 이해하는 과정에 ‘나’의 주관적 활동 또한 끊임 없이 일어남. 인식의 주체인 나는 세계를 수동적으로만 받아들이지 않고 능동적으로 이해함으로써 표상을 만들어냄. 따라서 인식의 주체인 나는 표상으로서의 세계를 만들어내는 창조자. 세계는 주관과 객관이 함께 만들어낸 공동의 창조물인 표상이며, 표상의 근원에는 도무지 원인을 설명할 수 없는 의지가 작용. 이 때 의지란 ‘너’라는 대상에 대해 ‘내가 갖는’ 충동과 같은 것인데, 그 의지가 생각을 결정하며, 비이성적이고 맹목적인 충동으로 시간 및 공간과 상관없이 나타나며, 이성능의 의지를 관철시키는 데 사용되는 도구일 뿐! 관념론에서 절대 왕좌에 앉아 있던 이성을 의지의 노예로 만들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것! 충동적인 욕구, 채워지기를 원하는 욕망과 채워지지 않음으로 인해 생기는 불만족으로 나타나는 의지는 한 순간도 조용히 있지를 않으며, 끊임없이 고통을 만들어냄. 왜냐하면 의지는 충족되고 싶어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인간 삶에 내재된 모든 고통의 원인은 의지 때문. 그래서 그는 인도 철학에서 그 해법을 찾음: 충동적인 의지를 절제하는 금욕주의! 우리의 신체를 엄하게 다스리고 육체적 욕망을 절제하는 금욕주의를 통해서 영원한 해탈, 고통으로부터의 자유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

니체(Friedrich Wilhelm Nietzsche, 1844–1900): 허무주의와 초인, “신은 죽었다!”

“삶이란 살아 남기 위한 것이고, 지배하기 위한 것이다!”: 존재의 본질은 남보다 더 강하려는 의지와 남을 지배하려는 권력의지이며, 모든 인간은 이러한 권력의지를 가짐. 인간의 문명은 ‘아폴론적 요소(이성, 질서, 형식, 질제)와 디오니소스적 요소(무질서, 광란, 정열, 감성)로 구성. 소크라테스가 과도하게 이성을 숭배하면서 서양문화는 속물적 소시민의 역사로 전락하였다고 봄. 소시민들로 가득찬 세계는 병들고 퇴폐적이며 삶을 부정해 왔는데, 이러한 과정에 종교가 주도적이며 결정적인 역할을 해왔는데, 종교가 인간을 나약하게 만들었으며, 기독교인들은 신앙과 상관없이 위선적인 삶을 산다고 비판. 그는 “이 세상에 도덕적인 현상은 없다. 다만 도덕적인 해석이 있을 뿐”이라고 말하며 도덕을 ‘주인의 도덕’과 ‘노예의 도덕’으로 구분하였는데, 기독교가 우리들에게 노예의 도덕을 가르쳐왔고, 그 결과 인간 삶의 참된 가치가 상실됨으로써 세계가 병들게 되었다고 주장. 병든 세계를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디오니소스의 부활(당시에는 바그너의 음악을 통하여). 지금까지의 모든 철학과 시스템을 거부(허무주의)하고 기존의 가치와 의미를 폐기 처분해야 하며, 초인이 그를 이룰 수 있다고 주장: “자유를 얻기 위해, 의무 앞에서 성스러운 ‘아니오’를 말하는 사자가 필요하다” 이러한 투쟁을 통해 자유를 얻은 사자는 다시 천진난만한 어린아이가 되어서 ‘놀이’에 빠지는 모습으로 변하는 데, 이 ‘놀이’는 새로운 가치와 세계를 만들어내는 ‘창조적 놀이’.

- 초인(Übermensch): 완전한 자유로움 속에서 내세가 아닌 현세의 기준에 맞추어 행동 (창조적 놀이), 강력한 힘, 생명력, 권력예의 의지를 특징으로 지니는데, 여기서 특히 중요한 것은 금욕적이라는 점. 초인과 반대 개념인 소인배는 같은 운명을 갖는데, 바로 ‘영원 회귀설’. 즉 모든 존재는 영원히 돌려지는 모래시계처럼 같은 운명을 갖고 태어남. 우리의 생은 영원히 반복해서 회귀. 초인이라하더라도 이 운명에서 벗어나지 못함. 초인에게 가장 힘든 시험, 가장 금욕해야 하는 지점이 바로 여기! 영원히 회귀하는 존재라는 인간적인 운명을 견뎌내야 한다는 점. 따라서 초인에게만 허락되는 완전한 자유도 사실은 무거운 책임(창조)을 감당하기 위한 것이므로 극소수의 사람만이 초인이 될 수 있다고 함! 니체의 초인 사상이 독일의 나치 제 3제국에서 잘못 해석되어 이용당하기도 함.

2. 질풍노도 운동(Strum und Drang)과 괴테(Johann Wolfgang von Goethe, 1749-1832)의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Die Leidenschaft des jungen Werthers>(1774)

질풍노도 운동: 합리주의적 계몽사상이 지배적이던 1750년대에 태어난 젊은 세대는 이성 의 속박으로부터 감성이 해방되기를 원했다. 인간은 정신과 육체로 분리될 수 있는 이원론적 존재가 아니라, 육체, 영혼 그리고 정신의 통일체라는 견해가 질풍노도의 사상적 토대가 되었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던 젊은이들은 이성적 사고에 경도된 규칙성과 보편타당성 대신 개인의 고유한 개성과 감성, 충만한 감정을 통해 세계를 변화시키고자 했다. 이러한 움직임은 문학계에서도 일어났다. 흥미로운 것은 질풍노도의 작가들이 ‘천재성’을 열렬히 동경했다는 점이다. 천재성은 세계의 근원에 대한 탐색을 가능하게 하는 유일무이한 능력으로 간주되었으며, 천재성을 가진 천재는 예술 창작을 위한 영감, 천부적으로 타고난 정신적 생산/창조 능력, 신적 본질이 드러나는 빛이며 거울이라는 찬양을 받았다. 이 때, 천재성은 이성이나 언어로는 파악되지 않으며, 배울 수도 없는 천부적으로 타고난 본원적인 능력으로 간주되었다. 또한 질풍노도의 천재 개념에는 모든 신분의 한계와 온갖 종류의 전통적인 구속을 타파하는 일종의 새로운 무언가가 내재되어 있었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1774): 서간체 소설로 괴테가 베슬러라는 도시에 체류하던 당시 사랑했던 여인 샤를로테 부프 Charlotte Buff와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하였다는 점에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 괴테는 아름다운 15살의 소녀 부프를 열렬히 사랑했지만, 그녀에게는 이미 약혼자가 있었다. 때문에 그의 사랑은 이루어질 수 없었으며, 치명적인 실연의 상처만을 남겼다. 반 년쯤 지난 어느 날 베슬러에서 친구의 아내를 사랑하였으나, 사랑을 이루지 못한 예루살렘이라는 사람이 자살했다는 소식이 세간을 떠들썩하게 한다. 이 소식을 접한 괴테는 자신의 실연 경험과 예루살렘의 자살 이야기를 섞어 4주 만에 소설 한 편을 완성하였는데, 그 작품이 바로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이다.

소설의 주인공 베르테르는 열정적이며 자유분방한 성격의 소유자로 규칙과 질서를 지키며 살아가는 소시민적인 삶에 만족하지 못한다. 시골 무도회에서 우연히 만난 여인 로테에게 첫눈에 반하지만, 이미 약혼자가 있었던 그녀는 ‘약속대로’ 약혼자(알베르트)와 결혼한다. 실연의 상처를 달래기 위해 베르테르는 다른 도시로 가서 서기로 일하며 귀족들과 교류하며, 귀족 신분의 B양과 교제하지만, 시민으로서 넘을 수 없는 신분의 벽을 확인한 후 모멸감을 안고 로테가 있는 시골로 돌아온다. 돌아온 그는 로테를 향한 자신의 변함없는 사랑을 확인하지만 결국 이를 수 없음을 깨닫고 자살하고 만다.

*주목해야 할 것! 소설의 제목

이 작품의 제목은 우리나라에서는 오랫동안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으로 번역되었다. 학계의 수많은 토론 끝에 최근에는 <젊은 베르테르의 고통> 혹은 <젊은 베르테르의 고뇌>로 번역되고 있는 추세이다.

슬픔과 고통/고뇌의 차이는 무엇일까? 힌트! 단순한 연애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점

*참고문헌

김성곤: 독일문학사, 서울:도서출판 경진, 2009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류시현 옮김): 쇼펜하우어의 삶과 사랑에 대한 에세이 사라지지 않는 빛, 사랑. 서울:보성출판사, 2006

앤서니 케니(김영건 옮김): 서양철학사, 서울: EJB, 2004

정진일: 서양철학사, 서울:해동, 2014

플라톤(박희영 옮김): 향연, 사랑에 관하여, 서울:문학과지성사, 2014